

“中 경기 불안, 국제유가 상승에 韓 물가 오르고 불확실성 커져”

KDI, 9월 경제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 3.4% 상승
수출 -8.4%, 전월비 감소폭 줄어
농산물 가격 0.3%→5.4% 올라

중국 경제의 부진과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중국 경제에 대해 “부동산 기업 금융불안, 부동산투자 부진 등 경기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라는 견해를 냈다.

이는 KDI가 지난달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것과 다소 대비된다. ‘중국·유가’라는 대외요인이 최근 대두된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큰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2.3%)보다 높은 3.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25.9%→-11.0%)의 감소 폭이 축소됐다. 또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0.3%→5.4%) 가격이 크게 올랐다.

8월 수출은 전월(-16.4%)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된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33.6%→-20.6%)의 감소 폭이 축소된 가운데 일반기계(3.2%→7.7%), 자동차(15.0%→28.7%), 선박(-30.9%→35.2%)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품목에서 반등하는 추세다.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7월 소매판매(1.5%→-1.7%)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고물가 등의 여파로 감소로 전환됐다.

내구재(8.3%→1.5%)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국산차(11.6%→-3.6%)가 감소로 전환했다. 수입차(38.1%→15.7%)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KDI는 “서비스업생산이 기저효과와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안만한 증가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7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감소하며 전월(-2.4%)보다 하락한 -1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4% 정기예금 상품 비교)

(단위:%)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최고금리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3.80	4.10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	3.60	4.05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2.97	4.02
BNK부산은행	더(The)특판 정기예금	3.60	4.00
DGB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3.75	4.00

/자료=은행연합회

4% 예금 재등장... 은행, 자금유치 사활

SC제일은행 등 5곳서 '4% 상품'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정기예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금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앞으로 3개월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의 규모도 118조에 달할 전망이다. 하반기 은행들의 자금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기예금(12개월) 상품 중 우대금리를 포함해 금리가 4%를 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정기예금(4.10%)과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4.05%),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4.02%), BNK부산은행의 더(The)특판 정기예금(4.00%),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4.00%) 등 총 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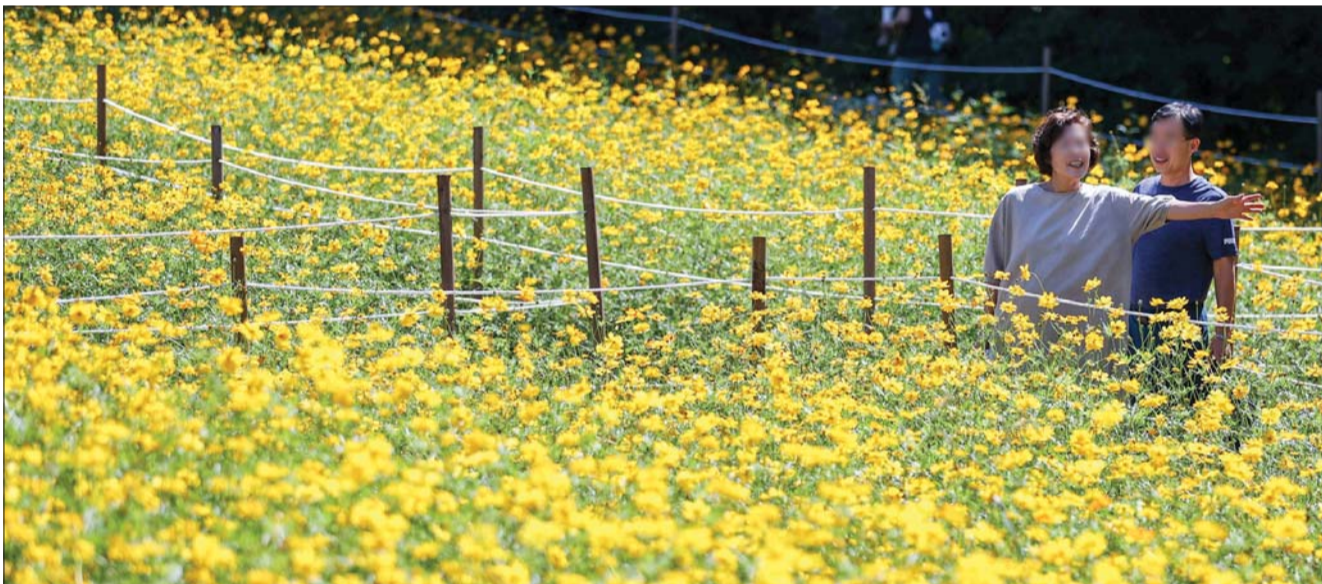
우대금리를 포함하지 않은 정기예금도 금리가 3% 후반대에 머물렀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우대금리를 포함하지 않고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3.83%)이었으며,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3.75%)이 뒤를 이었다. 두 달 전까지만해도 연 3.47%~3.73%이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p) 상승한 영향이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예금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AA·무보증) 1년물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87%로 전달(3.78%) 대비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기준 미국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4.268%로 집계됐다.

예대울 한도 규제가 정상화된 점도 금리인상을 부추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예대울 한도규제를 100%에서 105%로 완화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와 함께 '찰칵'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노랑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

상장사 2511곳 중 53곳 '감사의견 비적정'

금감원, 2022년도 감사보고서 분석
한정의견 7곳, 의견거절은 46곳
적정의견 97.9% '기업규모 비례'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의 경우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2511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지난 2019년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97%대를 유지했다.

비적정의견은 전기 대비 15개사 감소한 53개사다. 한정의견 7개사, 의견거절 46개사다. 의견거절은 지난 2020년 65개사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입 99.2%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적정의견의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로 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한 강조사항 기재가 감소한 것이 이유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 85개사다. 이 가운데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61개사로 70%가 넘었다.

2021 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미기재 법인(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

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 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다”며 “중·소규모 상장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는 양분화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빅 4)의 감사비중은 92.4%에 달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은 빅 4 이외의 비중이 78.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와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입 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여성 단시간근로자, 남성보다 3배 많다

고용부, 고용형태공시 결과
남성 3.6%, 여성 12.2% 달해

국내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의 갑절인 데다, 단시간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남성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소속근로자 456만 명)에 대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282만 명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비중이 3.6%에 그쳤다.

반면 여성근로자는 174만 명 중 단시간근로자 수가 21만1000명으로 무려 12.1%에 달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남자가 12.8%, 여자가 28.9%로 갑절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근로자'(456만6000명·올해 3월 공시 기준) 수는 전년대비 26만1000명(6.1%)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81.9%)도 0.2%포인트(p)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늘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117만2000명)도 11만6000명(11.0%) 늘었고, 그 비중도 25.7%로 소폭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친환경 냉매' 값비싸 현장사용에 부담

>> 1면 '온난화 주범 '냉매'서 계속

2019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0만톤으로 이 가운데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7%(5000만톤)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오존층과 기후변화에 HFC 계열을 추가하고 이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계획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연냉매와 친환경냉매가 대체 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냉매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사용해 대기에 해롭지 않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친환경냉매는 HFO(수소 불화올레핀) 냉매 등으로, HFC 냉매의 대체품으로 개발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다만, 자연냉매나 친환경냉매는 가격적으로 기존 구세대 냉매보다 비싸 현장에서의 사용 부담이 크다.

다.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와 이 속에서 대한민국 콜드체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냉매 시스템을 실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